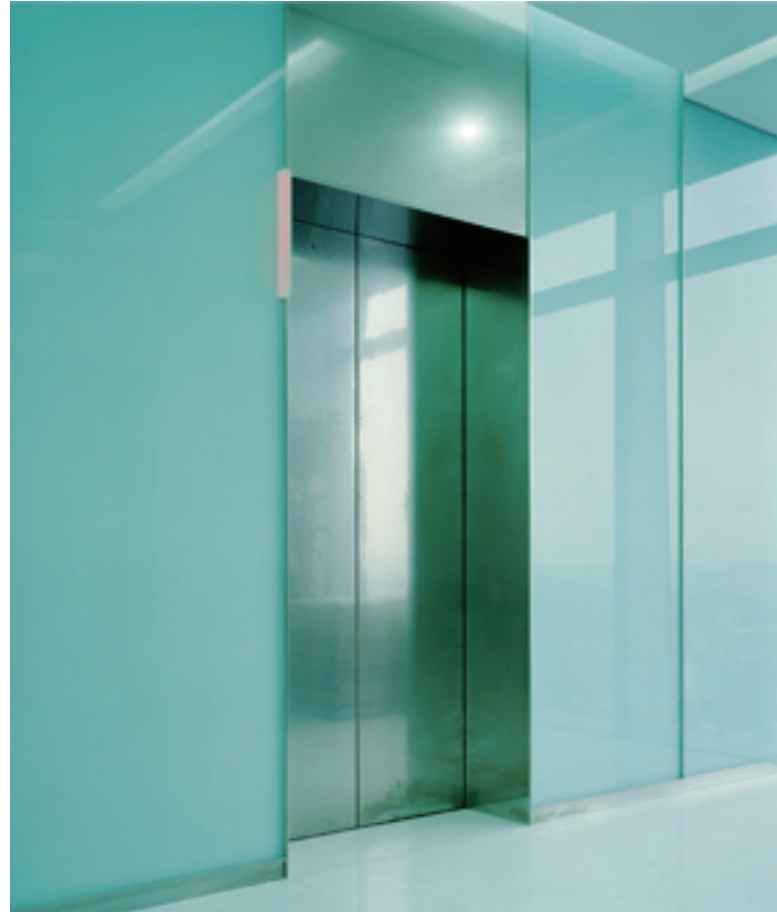


# 동양의 체질과 서구식 표정, 그 혼종의 공간들

〈서양식 공간예절〉전을 통해 바라보기 위한 글

임종은 전시기획자

서양식으로 변해온 삶은 우리 공간을 어떻게 만들고 다루어왔을까? 이 물음에 대해 독특한 관점을 보여주는 다섯 작가의 작품으로 차려낸 사진전 〈서양식 공간예절〉. 이름에서부터 미묘한 풍자가 묻어나는 이 사진전은 짐짓 '예절'을 문 제삼지만, 서양의 패러다임을 좇아온 오늘날 한국의 공간들이 어떠한 정체성을 지니는지를 짚어보고 있다.



김상길, 〈display /sk building 01〉, c-print, wood framed, 180×220cm, 2004 © Kim Sangil.

‘서양식’이라 하면 단연 경양식이다. 여학생이라고 부르기에는 조금 더 어렸을 때, 경양식 식당에서 ‘서양식 음식’을 먹으면 기분이 참 좋았다. 백화점 맨 꼭대기 층에서 돈가스를 또박또박 써는 칼질을 하면, 웬지 숙녀가 되는 것 같았던 기분이 들어서인가. 신사, 숙녀라 부르는 예절 바른 사람 말이다. 그렇지만 경양식 식당에서 파는 음식과 서양음식과의 거리는 지금의 나와 숙녀와의 거리만큼 멀다. 먹는 예절에 대해 좀더 말하면, 서양식 식탁과 우리의 밥상예절을 비교해보면 우리네 전통에 따른 상차림은 한 사람에게 한 상을 내는 것이 예절이었다. 그러나 빛바랜 흑백사진 속 만큼 오래 전 어느 순간부터, 찌개 한 그릇에 숟가락 여럿이 들락거리도 예절에 어긋나지는 않게 되었다. 전쟁을 거치면서, 전후의 빈곤을 겪어내면서 한 상에 둘러앉아 식사를 하다보니 그렇게 되어버렸다는 말을 상기할 수밖에. 예절이라는 것이 때와 장소에 따라서 달라지는, 바로 ‘처신(處身, place action)’이라는 점을 두고 잠시 생각을 멈추어 본다.

우리의 일상에 배어든 ‘서양식 예절’은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열린 〈서양식 공간예절〉전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공간과 예절에 대해 독특한 관점을 보여주는 다섯 작가의 작품으로 차려낸 이 사진전은, 서양의 패러다임을 닮아가는 오늘날 한국의 공간들이 어떠한 정체성을 지니는지 짚어본다. 다시 말해 그간 우리 삶이 서양식으로 변해왔는데 그 변화가 공간을 어떻게 만들어왔으며, 다루는 방식은 어떠한가, 거기에 어떤 종류의 예절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인 것이다.

고현주, <대한민국 국회로비>, c-print, Wood framed, 101.6×127cm, 2004-2006 © Ko Hyunjoo.  
아래/ 고현주, <대검찰청 대회의실>, c-print, Wood framed, 101.6×127cm, © Ko Hyunjoo.

### 혼재된 정체성의 공간을 포착하다

이번 전시의 기획을 맡은 이영준이 무한한 공간 안에서 규정한 혹은 설정한 ‘공간’은, 인간과 상호작용하는 인간 주변의 장소다. 그래서 공간의 인간화, 인간의 공간화가 일어난다는 것이다. 전시는 공간이 생체리듬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보여준다. 공간은 사람들의 정서나 체질을 담아내는 그릇이며, 이를 촬영한 작업을 통해 공간에 어떠한 체질과 정서가 담겨 있는지 보여주려는 것이 이 전시의 의도다. 공간을 예절로 재구성해보는 것이다.

그렇다면 전시의 명칭으로 쓰인 서양식 공간예절이란 무엇일까? 우리 공간의 어느 요소에 예절이 있을까? 과연 어떠한 공간인가? 이영준은 “서양에는 서양식 공간예절이, 동양에는 동양식 공간예절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오늘날 우리네 공간이 포스트식민시대의 혼재된 정체성으로 조직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결국 공간을 통해 대한민국의 현재를 조망해보려는 것이다.

식민시대를 겪은 다른 아시아 국가들처럼 우리도 근대에 서양식의 유입을 경험했다. 원래의 맥락이나 순서와는 다르게 단절되어 삽입되는 과정이었고, 따라서 시간과 공간의 불연속적인 구성을 낳았다. 그렇게 우리의 삶이 되어버린 서양식의 장점과 단점은 복잡함과 순서 없음으로 드러나게 된 것이다. 공간을 다뤄온 다섯 작가의 사진을 통해 우리가 보는 것은, 한국에서 일상적으로 접하는 공간과 현실인 동시에 불연속적인 시간과 공간의 구성이다. 이들은 저마다의 뷰파인더를 통해 서로 다른 시점을 보여주는데, 그들이 도려낸 혹은 포착

한 현실의 모습은 혼재된 정체성의 공간으로 수렴된다. 오늘날 한국 공간의 정체성을 다시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의문을 가질 것을 요구하는 이들의 작업은 두 가지 물음을 던진다. 지금, 여기에서 대한민국의 공간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다양하게 채집해온 사진들이 전시공간에서는 어떻게 재조직되어 보여지는가?

### 너무도 현실적인, 그래서 초현실적인

<서양식 공간예절>의 전시장에 들어서면, 1층 초입에 전시작품과 전시개념을 개요도로 정리한 ‘전시 재구성’이 보인다. 그리고 2층으로 올라가면 한쪽 구석에 기획자 이영준의 사진이 전시되어 있다. 전시의 기획의도를 한 번 더 알려주는 이런 배려는 친절하듯 조금은 부담스러운 듯 여겨질지 모르나, 관람객 곁에서 계속 전시를 설명해주는 느낌을 주는데 기획자의 서양식 공간예절에 대한 견해를 새삼 확인시켜준다. 그리고 참여작가인 구성수, 이윤진, 고현주, 김상길, 김도균의 작품으로 눈을 돌리면, 다양한 관점이 담긴 사진을 통해 동시대 공간의 층위와 복잡한 결을 발견할 수 있다. 작품과 더불어 주목할 부분은 카메라와 신체의 시선이 관련 맺는 방식을 고려한 디스플레이와 공간 구성이다. 전시된 작품을 통해 이런 신체성을 경험하는 관람객은 다시, 그리고 계속해서 공간을 의식하고 조직하게 된다.

그렇다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서양식 공간예절이 사진과 이러한 장치를 통해 어떻게 보이는 것인가? 작가들이 보여주는 한국의 동시대적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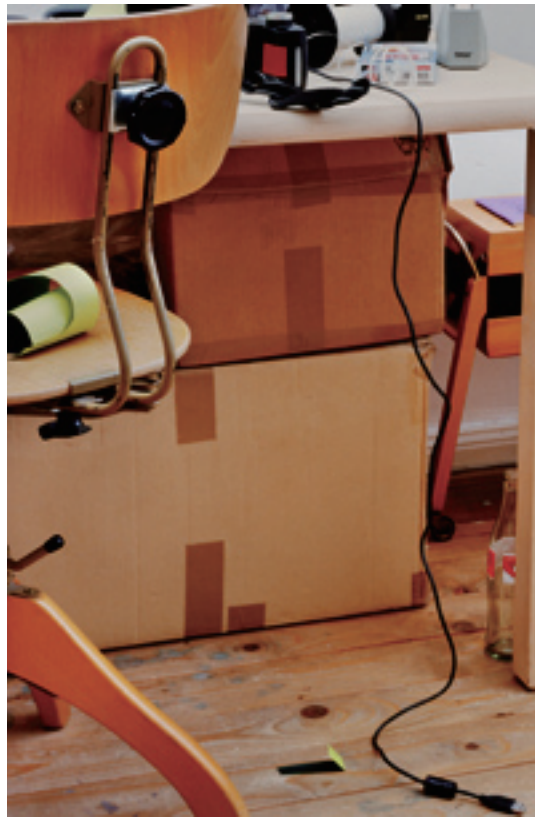




은 익숙하지만 낯설고, 사소하지만 의미심장해 보이는 초현실적인 풍경으로 펼쳐진다. 그들이 포착해온 이 공간들은 우리가 접하는 일상이나 현실의 모습이다. 소재는 법무부장관 집무실, 국회의장실, 헌법재판소 대회의실, 국방부 로비와 같은 국가 권력기관, 한식당, 사우나 내부, 표본 갤러리, 아파트의 일부분, 임대사무실, 미술관의 계단 통로 등 일상에서 접하는 공간, 공공의 공간이다. 또 책상과 의자, 선반과 여러 일상적인 사물들로 구성되어 정물화처럼 보이는 실내 풍경이다.

작품들은 조금 비틀린 시각으로 공간에 접근한다. 각각의 공간에 난무하는 어색하고 낯설고 비정상적인 관계들, 곳곳에 숨겨져 있는 은폐의 장치들을 작가들의 카메라가 발견해내는 방식으로 보여준다. 마치 음모론으로 세상을 통찰하는 방식처럼, 본래 있지도 않은 서양식예절이 보인다. 공간은 카메라를 들이대봐야 제 맛이라는 기획자의 말이, 초현실로 보이는 현실공간을 통해 음모 혐의를 더한다.

권력기관의 암묵적인 폭력과 조악함을 보여주는 공간, 고속성장으로 발생한 키치한 대중문화의 공간, 사진의 가공에 의해 변모하는 현실의 건축공간, 익숙한 공간의 낯선 풍경, 가려져 있던 사소한 공간의 재발견 등 한국사회와 우리 일상에 현존하는 공간을 보여준다. 전시 사진은 공간의 초현실적이고 분열적인 구성을 의도하고 보는 이에게 각성을 요구한다.



이윤진, <Still-Life Nr.49>, c-print, diasec, 210×139cm, 2005 © Lee Yoonjean.

오른쪽/ 김도균, <sf.M-1>, digital c-print, 150×185cm, 2005 © Kim Dogyun.



### 권위적이지만 조야한, 사적이지만 우아한

현재 한국의 유형화된 공간에 관심을 보여온 고현주. 국가 권력기관의 공간이 생성하는 암묵적인 위압감을 고발하는 작업을 지속해온 그녀가 촬영한 법무부 장관실, 헌법재판소 대회의실의 풍경은 보는 순간 권력을 느끼게 한다. 감상자가 권위적인 공간을 최대한으로 느끼게 하기 위해 웅장하고 넓어 보이는 대형 사이즈로 작품들을 인화했다.

권력기관과 권력자의 공간에는 난초화분, 지구본, 역대 권력자들의 사진이 저마다의 자리를 점유하고 있으며, 그 위치는 은유와 미의 요소가 거의 없는 색채와 조형적인 구성을 보여준다. 농림부 장관실에 놓인 초록색 소파와 벽에 걸린 사진의 들뜬 풍경처럼. 테이블을 등글게 에워싸듯 놓인 의자들 중 ‘그 분’의 자리에는 방석을 하나 더 두는 센스도 엿볼 수 있다. 또 건물의 로비를 지키는 동

상과 받침대는 그 비율이 허술하고, 그곳에 굳이 붉은 카펫을 깔아둔 의도가 새삼 궁금해지기도 한다. 냉정하고 날카로운 시선, 객관의 문법으로 포장한 고현주는 일관된 원근법을 이용해 권력으로 제압된 공간을 보여준다. 원근법으로 점점 조여가며 심리적 공간을 표면적으로 드러내고, 권력이 공간을 어떻게 재생산하는지 보여주는 동시에 그 권위를 해체하고 있다. 한편, 고현주의 헌법재판소 사진에 있는 문에서 로맹의 <지옥의 문>을 연상하는 관람객이 종종 있다는 에피소드를 전시장 도슨트에게 전해듣고, 그런 공간도 심미적인 태도로 감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다고 잠시 생각했다. 우리는 한국식 권력에서 나오는 권위를 인정하고 포장해주는 공간을 무심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에 익숙해졌다.

그에 비해 일상 속에서 무심히 지나쳐버리는



공간의 존재를 드러내는 이윤진의 사진은, 중립적이고 즉물적이면서도 친근하다. 시선은 물건이 놓인 선반을 살짝 올려다보고 테이블 밑에서 의자와 박스, 그림자 같은 것들을 주목하며, 유리기물이 들어 있는 장식장의 한 면에는 노란색 도시가스 점검 메모가 보이기도 한다.

그의 사진은 존재감을 드러내는 데 그치지 않고, 일상에서 눈여겨보지 않는 사적인 공간과 거기에 놓인 사물이 맺는 관계를 직시하게 한다. 공간과 사물, 사물과 사물 사이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공간감과 거리감에 집중하며, 평면적으로 느껴지는 책상과 의자의 거리, 질감, 의자와 의자 사이의 미묘한 공간감으로 자신만의 공간을 찾아낸다. 또한 화면을 구성할 때는 정물화에서 사물과 사물이 맺는 관계처럼, 긴밀하고 질서 있는 조형성과 미를 획득하게 한다. 이는 각각 세밀하게 묘사된 채로 시선의 이동에 따라 표현된다. 일상적인 동선을 벗어난 시선의 높이와 위치가 새삼 환기하는, 의식하지 못하던 공간으로 카메라를 가지고 개입하여 공간을 재발견하고 사물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한다.

#### 익숙한 일상을 낯설게 하기

김도균의 사진은 현실과 상상하는 세계의 경계를 자유자재로 넘나들며 우리 주변의 익숙하면서도 익숙하지 않은 풍경을 그린다. 낯설지만 익숙한 사진 속 건축 풍경은 세련된 듯, 혹은 어색한 듯 생경하다. 그는 일련의 사진에서 실제의 건축물을 자의적으로 가공함으로써 가상의 대상으로 변모시킨다. 현존하는 쇼핑몰 내부를 마치 미래의 어떤 공간



김도균, <sf.Koe-1>, digital c-print, 130×180cm, 2005 © Kim Dogyun.

인 것처럼 바꿔 버리고, 복도나 통로를 암시하는 공간도 미래의 이미지로 만들며, 화재용 스프링클러를 남겨놓아 매력점을 찍어두었다. 또 같은 맥락으로 실제공간을 가상의 비현실적인 화면으로 구성하고 사진 하단에 낙엽을 하나 놓아두기도 한다.

한국의 어느 고층 아파트 옥상에 세워진 특별한 기능 없는 건축물이 사진에 담기는 순간 라스베이저스의 화려한 건축물로 보이는 등 다의적인 해석이 가능해진다. 그의 사진 앞에 선 관찰자는 작가가 그러했듯, 존재이유와 기능을 파악하기 어려운 건축물과 흥미로운 대면을 하게 된다.

김상길의 사진에 담긴 공간은 우리에게 익숙하면서 동시에 낯설다. 계단을 많이 사용하지 않아 기능을 상실한 난간이나 미화된 승강기의 주변 환경을 차갑고 깔끔하게 구성해 대상의 본래 기능과는 무관한 조형성을 부각시킨다.

그의 시선은 텅 비어버린 공간에서 오는 기이함과 낯설음을 발견하는데, 그의 의도는 사물의 흔적을 지워버리는 것이다. 사물과 사람이 제거된 사무실의 흰색 벽과 조명은 공간을 평평하고 탈맥락적이고, 중립적이며, 고요하게 만든다. 전시를 보고 나면 우리가 이렇게 야릇하게 재구성된 공간에서





구성수, <All of the Place 2-1>, c-print, wood framed, 120×160cm, 2005 © Koo Sungsoo.

오른쪽/ 구성수, <All of the Place 4-1>, c-print, wood framed, 120×160cm, 2005 © Koo Sungsoo.

김상길, <mode-I\_Office for rent 02>, c-print, wood framed, 180×220cm, 2001 © Kim Sangil.



살고 있음을 깨닫게 된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무언가 연속성을 불러일으키는 기분이 드는 건, 아마도 이 이상한 공간에서의 우리 정서와 태도가 현실과 별로 어긋나지 않기 때문은 아닐까. 사실 이 작품들이 보여주는 공간이 카메라 렌즈의 포획물이 아니라면 그 자체로 우리의 평범한 환경이다. 무심코 경험한 이 공간들이 당연하게 여겨진다.

국적불명의 조각한 동양화가 그려진 벽에 화재경보기와 함께 붙어 있는 구성수의 작품을 보라. 동양화 속에 만발한 분홍빛 꽃과 색을 맞춘 분홍색 방석과 조리기구가 식탁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는 명동의 한식당을. 독서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한 사우나 내부(찜질방)를. 종교적인 경건함을 조장하고 법당 분위기가 나도록 어둡게 위장한 무당집의 날림 신선도와 라디에이터가 한구석에 자리 잡은 사진을...

구성수의 경우 그가 보여준 고도의 사진기술을 넘어 합리적인 다기능 공간조합의 한국적 사례를 볼 수 있어서 감동적이다. 관람자가 현실공간과 비슷한 매너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즉 한국식의 환경에 익숙하더라도, '서양식'으로 판단 기준을 삼아 한국식 공간예절을 보여주는 것 같다.

#### 근대화와 근대 이후, 현재 한국식 공간예절

전시에서 나타난 공간들은 근대화와 압축성장의 역사, 문화적인 경험, 서양식이라는 이데올로기 등으로 거칠게 조직된 우리 주변 환경이다. 사진이라는 매체를 이용하여 작가들이 발견한 공간 이미지가 꺾끄럽다거나 유치하다는 그 표면에 주목하기

보다는, 스스로 나의 현실공간이 냉소적이지도 관념적이지도 않도록 동시대성을 생각해본다. 우리안의 문화적 양식을 단지 서양식과 그 사이의 흉내 내기의 불완전한 것으로 이해할 필요는 없다.

전시장으로 채집되어온 공간은 서양식 공간예절에 대한 불손함이 아니라 현재의 한국식 예절과 양식이 철저하게 혼성된, 최종적으로 우리 삶의 일부분이다. 그 예절은 서양식에 부합한 세련됨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혼재된 재구성의 과정을 거쳐 공간의 생체적 리듬의 균형을 잡는 것이 아닌가? 균형을 위한 때와 장소에 따른 처신은 익숙함과 낯설음 동시에 경험케 한다.

글쓴이 **임종은** 1976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동덕여자대학교에서 회화를, 홍익대학교 대학원에서 미학을 공부했다. 대안공간 루프의 큐레이터를 거쳐, 현재 대전시립미술관 객원큐레이터로 '쌈지스페이스 큐레이터 레지던스 프로그램' 활동과 전시를 기획하고 있다.